

나눔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계획대로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말아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December 11,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가복음 10: 16-20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391장 -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찬송가 446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구은강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주께 가오니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호세아 4:11-19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 2023년 재정사역 및 예산준비 2022년의 사역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모읍시다.
 - 예산팀 모임 오늘 주일친교 후에 모입니다.
 - 2023 사역 준비 지난 주일 2023년 사역을 위한 조직을 마쳤습니다. 2022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2023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 섬김리더 모임 다음 주일친교 후에 모입니다
 - 송년 특별집회 12/26-31에 있습니다.
 -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27-29일에 열립니다.
주제는 “Making Jesus the Lord”(출 20:1-6)입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1) 주일 오전 11:00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2) 주일 저녁 8:00 / 인물 성경공부
(3) 화요일 오전 10:00 / 교회 성장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 12월의 사역 - 예산팀모임(11) 소금/빛 된 주간(11-17)
선교주일/섬김리더모임(18) 선교 주간(18-24) 성탄감사주일(25)
송년 주간(25-31) 중.고등부 겨울수련회(27-29)
송구영신/Oikos 모임(31)
- ♥ 12월 생일축하 ♥ 오준하 Jayden(2) 김훈태(19) 박다현(23)
유덕하(28) 유병하(28) 최선운(30)

기도제목

-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2/4	12/11	12/18	12/25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구 민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2/4	12/11	12/18	12/25
	구은강집사/박진성집사		유동숙집사/최내권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김훈태집사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 / 누가복음 10:16-20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했지만 12 제자와 70문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다. 문화와 언어가 달랐고, 다른 환경에 처했을 그들이, 그리고 오늘의 성도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꾼은 받을 품삯을 위해 일하나, 복음전파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삶이 제자의 길, 복음전도자의 삶이다. 여기에는 덤의 축복이 있다.

첫째, 예수님을 대신한다. 예수님의 방문에 앞서, 70명의 제자들이 2인 1조가 되어 예수님의 방문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권위를 위임받은 대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듯, 복음전도자도 그렇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 사역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말과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천국대사된 사명이 있음이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다. 70명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시켰다. 복음의 능력은 악한 영들과 세력들을 굴복시킨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에 대해 승리를 얻는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 주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 받았으니 담대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확신은 커진다.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가난하지만 부하다는 역설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게 된다.** 복음을 전할수록, 사역할수록, **섬길수록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현세에서의 상급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며 더욱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자 70명을 부르시고 파송하셨듯이, 예수님은 복음전도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수님을 대신하는 천국대사로서,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제대로 누리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순종없는 구원은 없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안타깝게도 이런 호소가 우리 귀에 자주 들린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 나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전도 집회나 부흥회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부분적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성경 전체가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구원은 모순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主)께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주인님과 구출자로서)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빼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죄인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인이 불행과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있다. 죄인은 “나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은 죄인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고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다.

A.W. 토저, 『네 주인은 누구인가_A.W.토저』

♡ 크리스천 꿀팁



사탄은 우리 사역의 출발과
과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마무리에
개입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했어.' 라는 교만으로

#망하기 전에 교만이 온다. 성공 후, 더 치열하게 기도로 방비해야 하는 이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 잠언 16:18

책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_ 임동수> 중에서

©GODpeople.com (인스타그램 : godpeople_com)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끔 침투하는 생각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과 같지 못한 이들을 평가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종이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입니다”라고 고백한 성경의 고백이 사실 가장 정확한 고백인데, 너무나도 자주 그 고백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고개를 세우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사역의 출발과 과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마무리에 개입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경계할 때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주님을 닮아 그분의 모습대로 되어져감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태영 전도사
(JACOB KIM)



18년 3차 18일 -

“...사역의 마무리에 개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